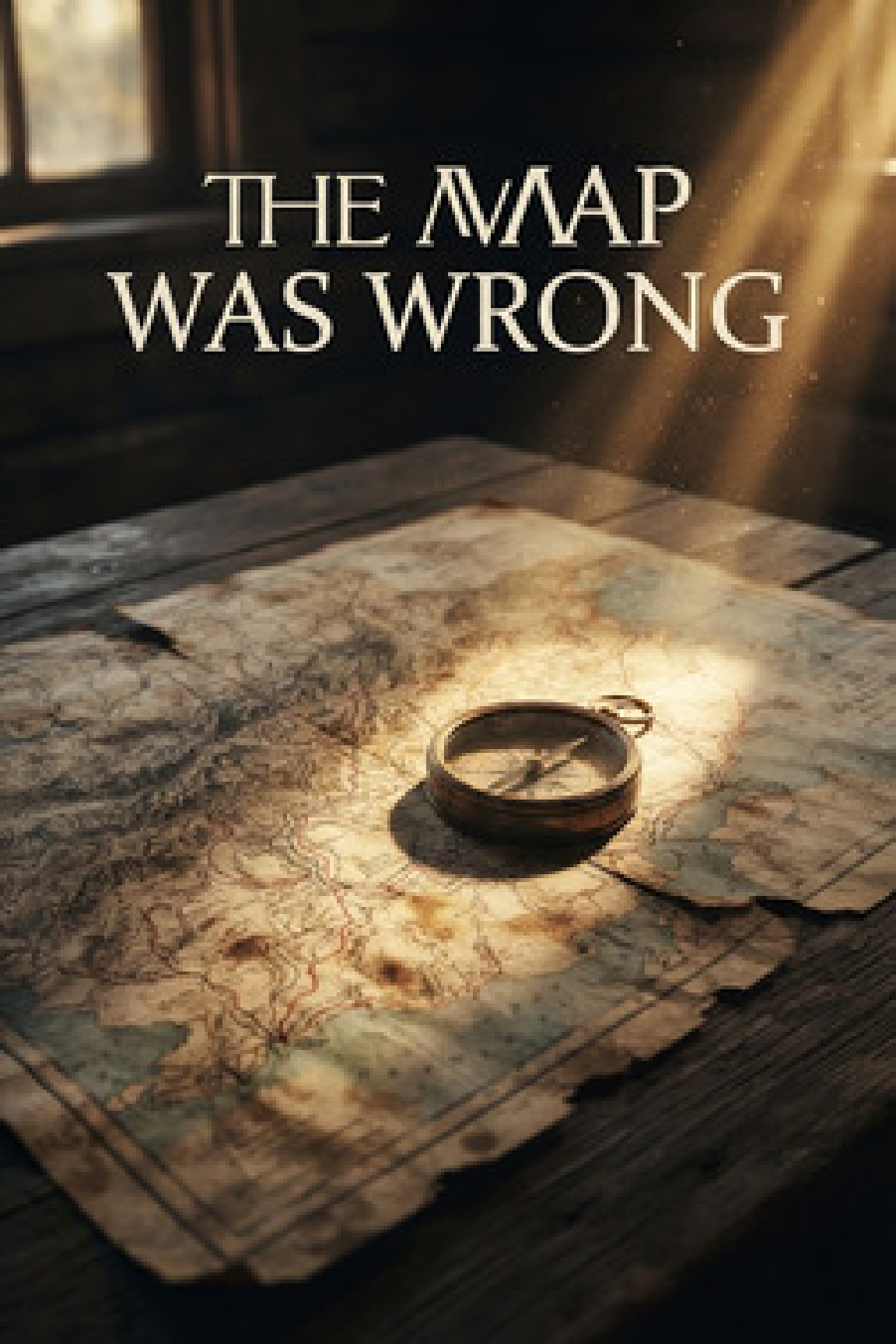

THE MAP
WAS WRONG

제2부

문턱 1

지도는 틀렸다

인간을 따라다니는 이상한 오만이 있다.

우리는 삶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데 여러 해를 보낸다.

5년 목표.

10년 전략.

예산.

전망.

일정표.

지도.

그러다 현실이 온다.

그리고 현실은 우리의 일정표를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오랫동안 나는 경험이 예측 가능성을 낳는다고 믿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여행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보였다.

합리적으로 보였다.

심지어 과학적으로 보였다.

그러다 삶은 그 반대를 증명하며 즐거워했다.

가장 중요한 전환은 언제나 약속 없이 찾아왔다.

예약도 없이.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왔다.

때로는 기회의 모습으로.

때로는 상실의 모습으로.

때로는 만남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의 모습으로.

그 차이는 나중에야 알 수 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보인다.

중단.

갑작스러운 변화.

우회.

그때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나는 기묘한 무늬 하나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확신할 때마다, 질문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면 답도 가치를 잃는다.

내 삶의 어느 특별한 시기를 기억한다.

나에게는 경험이 있었다.

책임.

성과.

지식.

모든 것이 꽤 분명한 궤도를 가리키는 듯했다.

나는 미래가 어떤 방향을 따라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자만해서가 아니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삶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다.

게임 테이블을 바꾸는 일.

규칙이 아니다.

테이블이다.

이것이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다.

테이블이 바뀔 때, 쌓아 온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게 된다.

다시 배워야 한다.

다시 관찰해야 한다.

다시 들어야 한다.

굴욕적인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학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 사기 시작했다.

편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편하지 않다.

정직했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능성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든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때는 누구나 유능해 보일 수 있다.

계획이 사라질 때, 됨됨이가 드러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던 이들이 아니다.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건너갈 줄 알았던 이들이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훨씬 드물다.

훨씬 인간적이다.

우리는 확신에 차 보이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세상에 산다.

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

결과를 약속하는 사람.

예측을 내놓는 사람.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불확실성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시스템이다.

우주는 누구와도 예측 가능성의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놀란다.

계속 항의한다.

계속 뜻밖의 일을 예외로 여긴다.

어쩌면 그 반대로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

마침내 이 생각을 받아들일 때, 무언가가 바뀐다.

절대적인 통제를 좇는 일을 그만둔다.

보장을 요구하는 일을 그만둔다.

미래가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는 일을 그만둔다.

그리고 탐험가처럼 살기 시작한다.

주의를 기울이며.

존중을 담아.

호기심을 품고.

삶이 말을 쓰지 않고 나에게 가르쳐 준 문장 하나를 기억한다:

가장 좋은 일과 가장 나쁜 일은 결코 소개장을 보내지 않는다.

온다.

들어온다.

풍경을 바꾼다.

그러고는 결과를 남기고 떠난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돌아보면, 내가 근본적이라고 여기는 경험들 가운데 많은 것이 사전의 합리적 평가를 결코 통과하지 못했을 것임을 깨닫는다.

너무 위험했다.

너무 있을 법하지 않았다.

너무 복잡했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

그런데도 바로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예측 가능성을 더 이상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안락으로 여긴다.

진짜 미덕은 다른 것이다.

열린 채로 남는 것.

주의 깊은 채로 남는 것.

배울 수 있는 채로 남는 것.

삶이 테이블을 바꿀 때에도.

운명이 질문을 바꿀 때에도.

미래가 노크도 없이 방에 들어올 때에도.

대륙과 위기와 관계와 성공과 실패를 건너며 배운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언제나 모든 예측 밖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야기의 가장 좋은 부분이 시작되었다.